

보도시점 2023. 12. 7.(목). 15:10 배포 2023. 12. 7.(목) 14:00

계란·닭고기 유통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

- 기획재정부, 축산물품질평가원 방문 및 닭고기계란 등 축산물 유통구조·가격동향 등 점검

기획재정부는 ‘23.12. 7일(목), 축산물품질평가원을 방문하여 “닭고기·계란 등 축산물 유통구조 및 가격동향과 할당관세 운영 현황”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.

< 간담회 개요 >

- ▶ 일시 : ‘23.12.7(목), 14:00 ~ 15:10
- ▶ 장소 : 축산물품질평가원
- ▶ 참석 : (기재부) 차관보, 농축수산물 물가대응팀, 물가안정현장대응팀
(축산물품질평가원) 상임이사, 기획조정본부장, 유통혁신본부장 등

최근 오리 관련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가 발생¹⁾하고, 야생조류에서도 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가 발생하는 등 방역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었습니다. 농식품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구성되어 방역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, 축평원도 축산물 이력제도를 위탁·운용하는 기관으로서 질병 이력 등을 관리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, 소비자에게 원산지·사육자·등급 등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유통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
최근 주요 마트는 계란 산지가격 하락 추이를 반영하여 12.5일부터 계란 가격을 500~1,000원 인하²⁾하는 등 계란가격은 지난주 7,044원/30구(11.27일, 전년대비 +4.7%)에서 12.5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0.8% 수준인 6,779원/30구로 안정화되고 있으며, 닭고기도 육계공급 회복 및 할당관세 도입 등 효과로 소매 가격이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다만, 조류인플루엔자(AI) 확산에 따라 산란계 및 육계농가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어, 정부는 수급 및 가격동향을 중점 점검(모니터링)하고 있습니다.

1) 전남 고흥 오리농장 고병원성 AI 발생(‘23.12.4일), 전남 무안 오리농장 고병원성 AI 확진(12.6일)

2) (롯데마트) 12.5일 △1,000원, (홈플러스) 12.7일 △500원, (농협) 12.7일 △600원, (이마트) 12.8일 △500원

홍두선 차관보는 축평원에서 주요 축산물 유통구조 및 수급·가격동향과 함께 할당관세 운용 및 축산물 이력제 등 현황을 보고받고, 산지가격 조사 체계 개편 및 할당관세 배정방식 효율화 방안 등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 하였습니다. 한편, 당장 조류인플루엔자(AI) 발생에 따른 농가 피해가 가장 우려 되는 만큼, 축평원에서도 방역지원에 충실한 역할을 다해주고 계란 및 닭고기 등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동향도 중점 관리하여 물가 상승 압력 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

담당 부서	경제정책국 농축수산물 물가대응팀	책임자	팀 장	장윤희 (044-215-2931)
		담당자	사무관	김정호 (ddyjd@korea.kr)
	경제정책국 물가안정현장대응팀	책임자	팀 장	안영성 (044-215-2855)
		담당자	사무관	이재환 (lllsds@korea.kr)

